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이토야마 아키코 내한 강연회

“강렬한 무엇이 다가올 때 소설은 완성되는 것”

소설 <바다에서 기다리다>로 2006년 134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일본 작가 이토야마 아키코(絲山秋子·41)가 지난 3월 22일 일본국제교류 기금 서울문화센터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작품세계의 안과 밖”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위해 내한한 그는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바다에서 기다리다》와 첫 장편소설 《바다의 선인》을 중심으로 글을 쓸 때 필요한 자신만의 집필요소, 과정을 설명했다.

“작가와 작품세계를 네 개의 사각형 모양으로 도식화했을 때 그 안에는 작가, 현실, 상상, 수수께끼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소설마다 연결 관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네 가지 외에도 작가만의 무의미에 가까운 이미지, 강렬한 번뜩임(히라메키) 같은 것이 올 때 소설이 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세다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반기업에 입사해 2001년까지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던 그는 퇴사 후 2003년 <잇츠 온리 토크>로 제 96회 문학계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이듬해 <막다른 골목에 사는 남자>로 제30회 가와바타야스나리상 수상, 2005년에는 <바다의 선인>으로 제55회 예술선장 문부과학대신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데뷔 이후 매년 문단의 굵직한 상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소설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병을 얻어 일을 쉬게 됐을 때 한 가해서 글을 쓰게 됐다”라고 작가 생활의 계기를 밝힌 그는 한국 방문 소감을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죄송스러운 일을 했다고 아버지에게 들었다. 일 때문에 해외를 찾은 것은 처음인데 한국어여서 좋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소설 경향에 대해 “작가로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 소설에는 키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둔갑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소설들이 유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눈물을 쫓 빼는 소설이 인기를 끌었다. 양쪽 다 좋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소설은 정이현의 단편 <낭만적 사랑과 사회> 만을 접해봤다는 그는 작품 속에 나타난 젊은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자극적’이라면서 “일본 여성이 한국 여성에 비해 건조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아쿠타가와상이 일본 내에서는 “신인작가에게 열려있는, 레벨이 별로 높지 않은 상”이라고 말한 그는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타이틀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지역 특색을 살린 소설과 끈적한 연애소설을, 멀게는 역사물을 써보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

